30년 모은 문화재로 박물관 개관 '전법행'



지난해 11월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에서 주최한 구법 삼보일배 정진에서 여예진 회장이 회원들에게 격려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구법 삼보일배 모습. 선두에서 기도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여예진 회장 .

'여예진 이사장'

B1면에서 계속

여 이사장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서 기도했다. 간절함이 만든 꿈이었을까? 여 이사장은 그날 밤 꿈에서 청수그릇을 보았고, 아주 맑게 울리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여 이사장은 시험에 합격했다.

"시험에 합격한 기쁨도 컸지만 부처님의 가피를 경험했다는 것이 더 기뻤고 행복했어요.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기도의 힘을. 사람들은 '기복' 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신심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기도를 통한 신행은 남편을 만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한의학 만학도였던 남편의 공부를 돕고 세 자녀를 키우기까지 여 이사장의 삶은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시린 손을 비벼가며 아이들의 얼굴을 만져 온기를 전해야 했고, 저녁 반찬거리를 살 돈이 없어 눈물을 훔쳐야 했다. 어쩌다 돈이 생기는 날에는 시장에 나가 조금이라도 싸게 그리고 많이 사서 아이들을 먹였다. 여 이사장은 자신은 배가 고파도 아이들의 입에 음식이 들어갈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다고 말했다.

남편이 동국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병원을 개원하기까지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여 이사장은 그 힘겨운 시간을 정성어린 기도로 극복했다. 덕분에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

"아이를 등에 업고 또 한 아이의 손을 잡고서 자갈길을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 데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다시 돌아오려면 하루 3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지요. 반찬거리 살 돈은 없어도 부처님께 올리는 꽃을 한 송이 가슴에 품고 행여나 잎이라도 떨어질까 노심초사 했어요.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정성' 이라는 단어의 뜻을 새삼 알게 됐어요."

여 이사장은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 의 의미를 진심으로 깨달았던 순간이라고 했다.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이 다하도록 귀의하고 정성으로 받든다' 는 의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였을까. 여 이사장의 기도는 '기복' 이라는 말로 밀어둘 수만은 없는 것이었다. 여 이사장과 남편 윤경석 원장은 1992년 10월 한국한의원을 개원했다. 환자가 줄을 이었다. 그리고 윤 원장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의 침술은 중풍 환자에게 탁월했고 국내 지방 한의원 가운데서 유일하게 중풍 부문 '코리아메디칼' 대상을 수상했다. 침술뿐 아니라 한방 약품에서도 정성을 다했다. 고압저온 탕제기로 약효를 올렸고 현대화 포장 방법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약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왔다. 26년 동안 운영한 한의원은 부산시 선도기업(바이오 헬스 부분)으로 인증 받고 모범 납세자로 표창까지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한의학을 외국으로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현재 한국 한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복' 넘어선 기도 신행과 수행

힘겨운 시절 기도 가피로 극복

어려운 시험 합격, 한의원 개원

기도하며 기도의 진정한 뜻 새겨

"가피로 얻은 행복 다시 회향해야"

사중금박물관 열고 전법회향까지

이 모든 발전에 안팎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여 이사장이다. 그녀는 남편이 오직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대외 활동에 최선을 다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시민을 위한 한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인내한 결과에 대한 보상인 듯 입소문이 나면서 한국한의원은 명성을 얻었고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이사장은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난 날 힘든 시간도 지금 얻은 성공과 명성도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제 것' 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 을 되새기고 내려놓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여 이사장이 전화기 속 할머니의 약값을 대신 했던 대목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박물관 세워 전법 회향도

여 이사장은 최근에 새로운 명함을 새겼다. '사중금(沙中金)박물관 관장 여예진' 이다. '사중금' 은 '모래 속에서 금을 캔다' 는 의미로, 참다운 가치를 알면 모래 속에서도 보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혜안(慧眼)을 상징한다. 여 이사장은 오랫동안 차 문화를 통해 익힌 안목으로 한국문화와 불교문화의 가치를 널리 세상에 알리고 싶었고, 사중금박물관은 그 의지의 실천이다. 여 이사장은 지난해 3월 31일 사중금박물관을 개관했다.

"민족의 혼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상은 곧 전통을 의미하고 전통은 지금 현재의 뿌리이자 정신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문화말살정책으로 훼손된 우리 민족정신을 바로 잡고 아름다운 문화를 선양하는 것은 곧 저희를 바로 알고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 이사장은 전통을 바로 아는 것이 참된 '힐링' 이라 강조했다. 자신을 바르게 아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물관에는 여 이사장이 30여 년 동안 모은 공예품, 회화 등 작품이 500여 점에 이른다. 여 이사장이 가까이 두고 함께 하며 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한 점 두 점 모은 소중한 우리 문화재이다. 소장품 중에는 많은 불교 관련 문화재도 포함되어있다.

"우리 전통문화의 많은 부분을 불교가 채우고 있어요. 우리가 오랜 세월 살아온 정신적인 뿌리에는 부처님 말씀이 곳곳에 녹아 있는 것이죠.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레 부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 이사장의 신행은 이제 봉사와 나눔을 넘어 전법의 길로 접어들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 이사장의 회향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진다.

모두를 위해 기도한다면…

여 이사장은 힘겨운 시절을 기도를 통해 지나왔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이룬 것들을 봉사와 나눔으로 회향하고 있다. 흔히들 기복에 치우친 신행은 옳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하지만 여 이사장에게는 그 이야기가 부질없는 의문이다.

"모두를 위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수행입니다."

여 이사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기도가 기복에서 끝날 것인가. 수행으로 이어질 것인가는 그 기도의 형태와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여 이사장의 기도 역시 작은 기복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 이사장의 기도는 그 작은 의미를 넘어선 기도로 점점 커졌던 것이다. '모두를 위한 기도' , 이 시대가, 이 시대의 불자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닐까. 오늘도 그는 '보살도' 를 이어간다.


2019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세계명상대전 개최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참불선원

WORLD MEDITATION CENTER CHAMBULSEONWON

조 실 보 광
선원장 각 산
신도회장 원 담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223 수안빌딩 2층~4층
☎ 1577-3696